

# 자동차

[Analyst] 정용진 02-3772-1591 ✉ yjung86@shinhan.com  
강수연 02-3772-1552 ✉ sykang@shinhan.com

## 김상조 교수의 재벌개혁안 발표 이후 현대차의 지주전환 공론화가 언론 보도됐으나 사실 무근으로 밝혀짐

- 김상조(한성대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4대 그룹에 대한 엄격한 재벌 개혁을 발언
- 초반 과제로 골목상권 문제 해결을 언급, 이후 기업집단국 부활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혁 가능성 대두
- 현대차 그룹에 관해서는 순환출자 구조의 문제와 하도급 이슈를 지목
- 기존 문제인 대통령의 재벌개혁안의 골자는 1) 주주의 권리 강화, 2) 순환출자 해소, 3) 금산분리 강화, 4) 상법 개정을 통한 오너의 전횡 방지, 5) 일감 몰아주기 규제, 6) 지주회사 요건 강화
-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 해소는 순환출자 해소와 일감 몰아주기 완화 → 주주들의 동의 → 지주 전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큼
- 지배구조 관련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대차의 지주전환(3사 분할 합병) 시나리오가 단독 보도됨
- 내용은 다음주 이사회를 통한 지주사 체제 전환의 공론화, 현대/기아/모비스 3사의 인적 분할 후 합병안
- 현대차 측에서는 지주사 전환 가능성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 반박 언론 기사를 보도
-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안 공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1) 오너측의 현금 및 자사주가 부족하고, 2) 주요 자회사들의 가치(글로벌비스, 이노션)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하락하겠으며, 3) 구주주의 승인이 다수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향후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기존 오너 지배력 강화가 아닌 주주환원 정책을 통한 건전한 경영환경 확립으로 전환될 것.

###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 정용진, 강수연)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현대차, 현대모비스)를 기초자산으로 ELS가 발행된 상태입니다.
- ◆ 당사는 상기회사(현대차, 기아차)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옵션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